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 영향요인*

Factors Influencing Post-traumatic Growth with Police Officer

Seung Woo Han**, Hee Sook Kim***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Post-traumatic growth with police officer. **Methods:** The variables were collected from August 18 to 31, 2014 from 171 the police officers of section in charge of violent crime and detective in ten different police offices in seoul. The variables were assessed by research tool of post-traumatic growth, traumatic event experience, self-esteem, stress coping method, stress response. The data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and post-test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zed with the SPSS 12.0 program. **Result:** Post-traumatic growth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female police officer and having a religion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emotion and problem focused coping. Factors affecting post-traumatic growth were emotion focused coping, female police officer and self-esteem, accounting for 24% of the variance in the outcome.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self-esteem improvement programs and improve stress coping method. Furthermore, further research. will have to be supported by the systematic metho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Key words: post-traumatic growth, traumatic event experience, self-esteem, stress coping method, stress response.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1st author. Tel: +82-53-420-4927, Fax: +82-53-422-4926 E-mail: woowoo1200@naver.com

*** Tel: +82-53-420-4927, Fax: +82-53-422-4926 E-mail: hskim8879@knu.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an. 22, 2015 / Revised: Feb. 5 2015 / Accepted: Feb. 10, 2015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외상사건 경험, 자존감, 스트레스대처 능력과 스트레스 반응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경찰공무원들의 외상후 성장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과 함께 의사소통을 증진하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경찰공무원 171명이었다. 외상후 성장, 외상사건 경험,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 반응 척도를 사용하여 2014년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성장은 성별에서 여성, 종교 유무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은 평균 57.7(±14.88)점, 자존감은 36.0(±4.55)점, 스트레스 대처에서 문제중심적 스트레스대처는 평균 18.2(±2.70)점이었으며, 정서중심적 스트레스대처는 26.1(±3.23)점, 스트레스 반응에서 신체화 반응 12.4(±7.06)점, 우울8.9(±6.06)점, 분노반응은 7.4(±4.54)점이었다. 외상후 성장과 자존감, 문제중심대처, 정서중심대처는 유의한 정성관으로 나타났다($p < .001$),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중심 대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beta = .35, p < .001$), 성별(여자)($\beta = .24, p < .001$) 및 자존감 이었으며($\beta = .23, p = .002$), 이들 변수의 외상후 성장에 대한 설명력은 24%였다. 따라서 경찰공무원들이 스트레스에 대해 정서중심적 대처 및 자존감이 높고 성별이 여성일수록 외상후 성장 정도가 높음으로 평상시 스트레스에 정서중심적 대처방법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익히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자존감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성별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경찰공무원, 외상후 성장, 외상사건 경험,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 반응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경찰청은 2012년 한 해 동안 총 995건의 살인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인구 100,000명당 2.0건으로 OECD 34개 국가 중 6위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경찰청, 2012). 수많은 범죄와 폭력은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 할수록 증가하게 되고 이를 경험하는 개인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된다.

경찰공무원은 사건 발생 시 법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24시간 끊임없는 긴장상태로 업무를 하게 되는데 경찰 공무원 중에서도 강력계, 수사계, 형사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및 조직폭력등 형사범들을 수사, 조사, 검거하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 비해 외상사건에 노출 될 위험이 크다.

이와 같이 강력계, 수사계, 형사계 경찰공무원들이 흔히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외상사건경험은 공격적 성향, 충동조절장애 및 공황발작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외상후 스트레스(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발생 원인이 된다(한보람·김정규, 2014).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다양한 외

상사건경험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보호와 직결되므로 단순히 한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부정적 결과로 방관하기보다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일한 외상사건을 경험해도 어떠한 사람은 외상사건에 대한 재경험, 심리적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증상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지는 반면, 어떠한 사람은 외상의 경험과 아픔을 잘 이겨내어 외상 경험으로부터 긍정적이고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외상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라 한다. 외상후 성장은 단순히 외상을 긍정적으로 이겨내고 건강한 신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건 이전의 기능회복을 넘는 변형과 기능에서의 질적인 변화를 포함한다(Tedeschi & Calhoun, 2004). 그러므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대상자 스스로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개인의 내적성장과 동시에 외상경험 이전과는 다른 질적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전보람, 2012).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외적 요인은 다양하다. 내적요인으로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대상자가 심리적 성장, 바람직한 환경적응 및 긍정적 자기실현에 도움을 주는 자존감(김희숙 외, 2014), 누적된 외상사건경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개인의 내적성장을 이끌어 내는 스트레스 대처방식(김현경, 2007), 외상을 경험한 대상자에게 불면증, 우울, 신체적 질환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시키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반응 등이 있다. 그리고 외적요인으로는 외상을 경험한 대상자에게 끊임없는 내적성장의 질문을 던져 삶의 지각에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여 외상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게 만드는 외상사건경험(Tedeschi & Calhoun, 2004) 등이 있다.

외상후 성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암환자, 뇌졸중 환자 등 특정 질환이나 질병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연구들로 보호서비스 전문직(소방, 경찰, 응급)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외상후 성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후 성장의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연구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 혹은 병리적인 증상에 초점을 둔 기존의 외상 후 스트레스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외상후 성장과 관련된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같은 내면적 요인들을 파악하여 부정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예방적 중재 및 제도적 대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치료적 프로그램 개발 및 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 외상사건 경험, 자존감, 스트레스대처 및 스트레스반응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성장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과 외상사건 경험, 자존감, 스트레스대처, 스트레스 반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경찰공무원 특성

경찰공무원은 치안, 사회질서,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직업특성이 가지는 업무특성상 다른 직군에 비해 위험사건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다. 경찰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태러 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수행하게 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3). 최근 경찰공무원의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그들의 정신건강 및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내적·외적 요인을 파악하여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2. 외상후 성장

외상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란 외상사건이나 위기를 겪은 후 주관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심리변화란 단순히 사건이전의 신체적 기능수준 회복이 아니라 심리적 기능수준, 혹은 삶의 자각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박예슬, 2013). Calhoun & Tedeschi(1996)는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긍정의 경험적 연구로부터 세 가지 요소, 자기 지각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그리고 인생관의 변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우선 자기 지각의 변화인데, 이는 외상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이전보다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내면의 발견이다. 둘째는 대인관계의 변화인데, 외상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친밀감, 자기노출 등의 증가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친밀감 및 자기노출은 결국 문제해결에 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타인이 개개인이 외상 후 신체적, 심리적 장애를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생관의 변화인데, 개인의 인생목표가 바뀌고, 자신, 타인,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증가되며, 신앙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경찰공무원은 치안, 사회질서,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직업특성이 가지는 업무특성상 다른 직군에 비해 위험사건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다. 살인, 총기사용, 고속의 차량 추격과 같은 직접적인 외상경험도 많지만, 자살, 혹은 타살 목격과 같은 일상에서 겪게 되는 간접적인 외상경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외상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정신건강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3. 외상사건경험

외상사건경험이란 개인, 혹은 타인에게 살인, 심각한 상해, 위험한 현장사건, 사고, 혹은 개인의 신체적 위협하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타인의 사건, 사고를 목격한 경우 무력감, 공포와 같은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이하 APA). DSM-IV에서 말하는 외상사건이란 단순히 개인을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 안녕에 위협하는 가시적인 사건들을 의미하는 반면, 외상후 성장이론에서 말하는 외상사건의 개념은 다르다. 이때의 외상사건이란 객관적 사건 자체보다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상으로 인해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양귀화, 2014). 외상사건경험을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심리적 손상 및 고통을 유발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시적인 사건 및 충격도 한 개인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경찰공무원들은 범죄, 치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호, 사회안전유지 라는 업무의 성격아래 경찰공무원들은 다양한 직·간접적인 외상사건들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와 사건경험 후 외상후 성장과의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4. 자존감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Rosenberg, 1983). 자존감은 인생에서 갈망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Rosenberg, 1965), 이전보다 긍정적이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으로부터 부적응적인 분노양상 및 충동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김은희·강승호, 2010).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고 부정적인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다(김현경, 2007). 이처럼, 자존감은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자존감의 높고 낮음이 외상후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5. 스트레스 대처

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요인을 연구하는데 개개인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는 외상사건 경험 이후 건강한 삶의 방향 및 외상 후 성장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 Folkman & Lazarus(1984)는 대부분의 사람이 외상, 고난, 역경 같은 외상경험을 개인이 어떻게 극복하고 평가하는지에 따라 부정적인 방식인 심리적 고통 및 충격으로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대처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적응적인 기능에 영향을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문제 중심적인 대처전략은 스트레스나 심리적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였다. 또한, 정서중심대처를 할수록 외상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외상을 경험한 후 자신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표현하면 긍정적인 심리적 반응을 표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Smyth, *et. al.*, 2008). 따라서, 예측할 수 없고 위험한 사건,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외상 후 성장요인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영향요인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6. 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란 외부 자극에 대한 신체의 비 특이적 반응 즉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에 저항하는 반응이다(고현민 · 신호철, 2011). 스트레스가 축적되면 결과로써 반응이 나타나는데, 주로 우울, 분노, 불안, 및 신체적증상 등이 나타난다(고미자 외, 2003). 외상경험으로 인한 우울, 분노와 같은 감정은 심리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으로 남아 신체의 피각성 반응, 회피와 정서적 마비 등과 같은 심리적 고통과 정신장애를 경험하게 된다(안류연 · 조용래, 2014).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심리적 증상중 하나인데 그중 분노, 우울은 외상후 스트레스에 동반되는 대표적인 증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외상 경험 후 같은 신체적 증상이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대표적으로 (1)공포, 불안, 빠른 심박 (2) 위장장애로서, 구토, 위산과다, 속쓰림 (3) 폐질환으로서, 천식, 과호흡, 그 외에, 흥분, 분노, 수면장애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신체적 증상이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경찰관 개개인이 외상 후 삶을 건강하게 극복하고 정신 적으로 외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경찰공무원과 같이 위험사건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는 직업군에서 스트레스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스트레스반응 안에 우울, 분노, 신체적 증상의 상관성을 아는 것은 외상후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및 대상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25개의 구에 있는 31개의 경찰서 중 G구 외 10개 경찰서의 강력계, 수사계, 형사계 부서에 근무하는 정규직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의 표출하였다. 단, 각종 외상사건 및 사고의 노출경험이 적은 1년 이하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제외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2(2009)에 따라 유의수준 $\alpha=.05$, effect size $d=.15$, 검정력 $1-\beta=.95$ 을 기준으로 독립변수 8개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서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60명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00부를 배부하였다. 그 중 미회수, 무응답이 많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29부를 제외한 최종 171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1) 외상후 성장

본 도구는 Tedeschi & Calhoun(1996)이 개발하고 송승훈(200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외상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1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0점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였다’에서 5점 ‘매우 많이 경험하였다’의 6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후 성장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송승훈(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2) 외상사건 경험

Thomas-Riddle(1999)의 직무사건 리스트(List of Work Events)를 신성원(2007)이 번안하고 직접외상사건 경험과 간접외상사건 경험 목록에 김자혜(2012)가 5점 Likert척도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개 문항으로 직접적 외상사건 경험 시 충격 정도 9개 문항과 간접적 외상사건 경험 시 충격 정도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없다’에서 5점 ‘매우 심하다’의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사건 경험에 따른 스트레스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성원(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3) 자존감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Jeon(1974)이 번안하고 홍희정(2011)이 5점 Likert척도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1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

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4개 문항은 역산하였다. 홍희정(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4) 스트레스대처

Carver(1997)의 The Brief COPE(Coping Orientation to the Problem Experienced)척도를 주성아(2009)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제중심대처 6문항, 정서중심대처 10문항, 그리고 역기능대처 12문항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대처양식이 외상후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에서 4점 ‘많이 사용하였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성아(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문제중심대처 .85, 정서중심대처 .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78, .73 이었다.

5) 스트레스 반응

본 연구에서는 고경봉 외(2000)에 의해 개발되고 최승미 외(2006)에 의해 수정된 단축형 스트레스 반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주일간 경험한 스트레스 반응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의 하위영역 신체차원 9문항, 우울차원 8문항, 분노차원 5문항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0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아주 그렇다’의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승미, 강태영과 우중민(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신체증상 .85, 우울증상 .86, 분노증상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체증상 .93, 우울증상 .92, 분노증상 .90 이었다.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4년 8월 18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보호와 연구진행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KNU 2014-0068)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1964)에 근거하여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해주며, 인간을 존중하며 대상자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과학 발전과 사회의 이익에 앞서야 한다는 윤리적 기준을 원칙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였고, 연구에 자의로 참여할 것을 동의하며 중도포기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기록해 주는 모든 사항들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 되므로 개인의 비밀은 보장된다고 연구자가 직접 설명 하였다. 비밀보장을 위해 익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밀봉된 봉투로 수거되었다.

4. 자료분석 방법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요인들에 대한 점수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변수측정에 사용된 문항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값을 구하였다.
- 4) 관련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였다.
-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독립변수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범주가 2개인 경우에는 t-test를, 범주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6)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별 분포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90.6%, 여자 9.4%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3.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39.2%, 50대 이상 17.0%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기혼이 78.9%, 미혼이 21.1%이었으며,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54.4%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이하가 25.1%, 전문대 20.5% 순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32.7%로 가장 많았으며, 경사 31.0%, 경장 26.9%, 순경이 6.4% 순으로 나타났다. 입직 경로는 순경 공채가 94.7%이었으며, 특채가 5.3%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연수는 20년 이상이 26.3%로 가장 많았으며, 6-10년 25.1%, 5년 미만 19.3%, 15-20년 18.1%이었으며, 11-15년은 1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 52.6%, 유교 47.4%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전체 월 소득별로는 400만원 이하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원 이하가 28.7%, 500만원 초과 26.9% 순으로 나타났다(<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성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 여성이 67.4점(± 13.59)으로 외상후 성장 수준이 높았고($t = -2.79$, $p < .006$)과 종교에서 (유)가 60.8점(± 13.18)으로 외상후 성장 수준이 높았다($t = 2.57$, $p < .011$). 그러나 다른 일반적 특성 학업, 결혼, 계급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외상후 성장

(N=17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F p
성별	남자	155(90.6)	56.7(14.69)	-2.79
	여자	16(9.4)	67.4(13.59)	.006
연령	30-39	75(43.9)	58.0(15.33)	0.67
	40-49	67(39.2)	56.4(15.07)	.512
	50대이상	29(17.0)	60.2(13.32)	
결혼	미혼	36(21.1)	57.6(17.10)	-0.09
	기혼	135(78.9)	57.8(14.30)	.933
학력	고졸이하	43(25.1)	57.0(14.56)	0.10
	전문대졸	35(20.5)	58.5(12.36)	.908
	대졸이상	93(54.4)	57.8(15.98)	
계급	순경	11(6.4)	48.5(13.21)	1.32
	경장	46(26.9)	58.8(15.87)	.263
	경사	53(31.0)	57.9(15.38)	
	경위	56(32.7)	58.1(13.80)	
	경감	5(2.9)	63.4(12.64)	
입직경로	순경공채	162(94.7)	58.2(14.88)	1.71
	특채	9(5.3)	49.6(13.16)	.090
종교	유	81(47.4)	58.9(16.15)	0.40
	무	90(52.6)	56.4(14.88)	.811
근무년수 (년)	5년미만	33(19.3)	55.0(13.71)	2.57
	5년이상-10년미만	43(25.1)	59.5(15.54)	.011
	10년이상-15년미만	19(11.1)	58.1(14.31)	
	15년이상-20년미만	31(18.1)	60.8(13.18)	
	20년이상	45(26.3)	55.0(15.84)	
가계 월 소득 (만원)	300만원이하	49(28.7)	57.9(13.25)	0.08
	300만원초과-400만원이하	57(33.3)	57.1(15.24)	.969
	400만원초과-500만원이하	46(26.9)	58.5(13.49)	
	500만원초과	19(11.1)	57.4(21.05)	

2.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 정도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 평균점수는 57.7(±14.88)점으로 나타났다. 외상사건 경험은 49.4(±15.79)점, 자존감은 36.0(±4.55)점, 스트레스대처에서 문제중심대처는 18.2(±2.70)점, 정서중심대처는 26.1(±3.23)점, 스트레스 반응에서 신체화의 평균점수는 12.4(±7.06)점, 우울 8.9(±6.06)점, 분노 7.4(±4.54)점 이었다 (<표 2>).

<표 2>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 정도

(N=171)

		Min	Max	M	SD
외상후 성장		16	93	57.7	14.88
외상사건 경험	직접외상 사건경험	9	36	15.8	5.87
	간접외상 사건경험	14	61	33.6	9.92
자존감		24	47	36.0	4.55
스트레스 대처	문제중심 대처	12	24	18.2	2.70
	정서중심 대처	18	35	26.1	3.23
스트레스 반응	신체	0	28	12.4	7.06
	우울	0	22	8.9	6.06
	분노	0	17	7.4	4.54

3.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 외상사건 경험(직접, 간접), 자존감, 스트레스대처의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의 신체, 우울, 및 분노를 분석한 결과 자존감($r=.28, p<.001$), 문제중심대처($r=.30, p<.001$)와 정서중심대처($r=.40, p<.001$)에서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3>).

<표 3>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171)

변수	외상사건 경험		자존감	스트레스대처		스트레스 반응		
	직접	간접		문제중심	정서중심	신체	우울	분노
외상후 성장 $r(p)$.08 (.299)	.16 (.041)	.28 (<.001)	.30 (<.001)	.40 (<.001)	-.03 (.666)	-.09 (.252)	-.08 (.284)

4.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외상후 성장과 관련성 있는 변수인 외상사건 경험, 자존감, 신체증상, 우울증상, 분노증상, 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대처와 일반적 특성 중 외상후 성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성별(여자), 종교(유)를 더미화 시켜 단계적 다중회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 대처의 하위영역인 정서중심 대

처($B=.35, p<.001$), 성별(여자)($B=.24, p<.001$), 자존감($B=.23, p=.002$) 이었고, 이들 변수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설명력은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지수 간에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분석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 Limit)가 0.915~0.980로 0.1 이상이며 변량확대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나 이 연구에서는 1.020~1.092로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상관관계는 1.684를 나타내어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였다(<표 4>).

표 4.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N=171)

	β	t	p	Adjusted R^2	F	p
(상수)		-1.12	.263		18.74	<.001
정서중심대처	.35	4.99	<.001	.16		
성별(여자)	.24	3.48	<.001	.20		
자존감	.23	3.22	.002	.24		

※ Durbin-Watson = 1.684, Tolerance Limit = 0.915~0.980, VIF= 1.020~1.092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사건 경험,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 및 스트레스 반응 정도를 파악하고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 평균점수는 57.7점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외상후 성장을 평가한 최승미(2008)의 연구 56.3점과 송승훈(2007)의 연구 55.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학적인 집단의 특성에 따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외상사건의 지각된 충격이 클수록 외상후 성장이 잘 일어난다는 연구결과(전보람, 2012)에 의해 경찰공무원들은 24시간 끊임없는 긴장상태와 강도 높은 사건, 사고에 노출되는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외상사건으로부터 지각된 충격의 정도가 커서 일반인보다는 외상후 성장 평균점수가 높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다양한 고위험 직군의 직업적 특수성이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상사건 경험의 평균점수는 49.4점으로 생활안전계 경찰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한 김자혜(2011)의 연구 51.6점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경찰공무원 중에서도 강력계, 수사계, 형사계로 대상자를 한정하여 사건발생이후 일선으로 출동하는 생활안전계,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비해 외상사건 경험의 빈도가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대상자를 업무특성과 환경에 맞게 세분화 하여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외상사건 경험에 대한 인지적 변화를 도모하여 부정적 외상사건 경험을 긍정적 경험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간호학적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존감 평균점수는 36.0점으로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자존감을 측정한 홍희정(2010)의 연구 35.4점보다 높게 나왔다. 그리고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원저자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일반 성인 2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최승혜(2011)의 연구의 34.9점보다도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권력의 대표자로 명령, 강제, 법의 집행, 및 지역사회의 기초질서와 도덕성에 대한 대변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장현석, 2013)을 담당해 온 경찰공무원이 업무 중에 높은 공권력을 집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이러한 업무수행의 특징이 다른 직군에 비해 경찰공무원들에게 더 높은 직업적 자부심과 더 높은 자존감 향상에 작용하여 외상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대처에서 정서중심대처와 문제중심대처의 평균점수는 각각 26.1점과 18.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출소, 생활안전계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김자혜(2011)의 연구에서 정서중심대처 22.7점, 문제중심대처 17.5점과 유사하였다. 그리고 고위험 직종중의 하나인 지하철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주성아(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정서중심대처 22.7, 점 문제중심대처 14.7점 순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Lazarus(1984)는 상황적인 요구들이 개인이 다스릴 수 있다고 평가될 때 문제중심대처를 더 적응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개인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평가될 때에는 정서중심대처를 더 적응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강력계, 형사계, 수사계 경찰공무원들은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고위험 및 스트레스에 처해있는 직업적 특성, 즉 개인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상황적 사건으로 인해 문제중심대처 보다는 정서중심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스트레스 반응에서 신체증상의 평균점수는 12.4점, 우울증상은 8.9점, 분노증상은 7.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최승미(2008)의 연구에서 신체증상 13.1점, 우울증상 11.6점, 분노증상 7.6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위험직종들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직업적 사명감과 책임감이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반인들보다 신체적·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반응이 높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추후 고위험 직군을 확대하여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고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성장 정도를 분석한 결과, 종교와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일반적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박혜원·안현의(2006)의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를 가질수록 높은 영성과 관련이 있고 이는 성장적 숙고를 거쳐 외상후 성장을 이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종교의 의미, 습득정도, 종교활동 등과 외상후 성장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외상후 성장 정도는 성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과 같이 고위험군 직종 대상으로 성별에 대한 외상후 성장을 연구한 논문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현진(2012)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온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유현진(2012)의 연구에서 외상후 성장의 하위영역인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는 여학생이 남학생 집단보다 높고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영역인 자기비난에서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

아 여성과 남성이 외상을 경험한 후 외상을 인지하고 나타내는 반응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추후 성별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외상후 성장을 종속변수로, 성별, 종교, 외상사건 경험, 자존감, 긍정적 대처, 및 스트레스 반응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정서중심대처, 여성, 자존감 순으로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4%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서중심대처로 외상후 성장과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보였고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1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어떠한 문제가 닥치고 심한 외상을 경험한 후 이를 정서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극복하는 사람은 정서적 표현이 낮은 사람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높다(Friedman & Booth-Kewley, 1987)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사건을 경험한 후 경험한 정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표출하는 것이 외상후 성장이 나타낸 이후에도 긍정적인 심리적 적응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다. 이에 고위험직종의 대상을 확대하여 정서중심대처가 외상후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위험사건을 경험한 후 정서중심대처를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여성으로 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성별에 대한 외상후 성장을 연구한 구체적인 논문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분석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성별과 외상후 성장의 경우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성장을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Callhoun & Tedeschi, 1996)와 Polatinsky & Esprey(2000)의 외상경험에 의하여 질병이나 사고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은 수준의 외상후 성장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사건, 사고 및 외상을 경험한 후 남성보다 기능적 대처를 많이 사용(이국로, 2001)하므로 각종 외상사건 경험이후 정서중심적대처와 문제중심적대처와 같은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여 외상사건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질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인구학적 특성, 사회문화적 요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역할도 변할 것이라 생각되므로 특정대상자의 비교, 분석을 벗어나 성별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마지막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자존감은 외상후 성장과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보였고,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낮은 자존감은 외부환경의 자극 및 외상을 받은 후 더 많은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받는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치안유지라는 직업적 특수성 아래 다른 직업보다 신중을 기하는 직업이므로 자존감이 높을수록 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타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므로 자존감은 외상후 성장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이나 긍정적이고 건강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자존감 향상 훈련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로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정서중심대처와 자존감, 그리고 성별(여자)임을 알 수 있다. 시대가 변할수록 사건, 사고 및 범죄의 빈도는 높아지고 있고 사회는 그에 따른 대처와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접근방법이 질환을 중심으로 병리학적 모델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건강증진 및 예방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상후 성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할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또한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사건, 사고, 및 범죄가 혐해지고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시점에서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통합적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강력계, 수사계, 형사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각종 외상사건 경험 후 나타날 수 있는 외상후 성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개인의 외상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반응과 같은 내적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에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정서중심대처를 중심으로 경찰관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여러 방안 및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성별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공무원 중에서도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 등에서 외상후 성장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본 연구 자료가 기초자료를 제공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미자, 유숙자, 김양근. 2003.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반응과 대처양식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3(3): 440-450.
- 고현민, 신호철. 2011. 한국 30~40대 성인에서의 인지적 스트레스와 심박동 변이의 상관관계. 대한스트레스학회. 19(4): 273-279.
- 김은희, 강승호. 2010. 자존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공격성 간의 관계: 교도소수용자를 대상으로. 한국교정학회. 47: 119-143.
- 김자혜. 2011.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유형과 PTSD 증상의 관계: 스트레스 대처 양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현경. 2007. 난민으로서의 새터민의 외상 회복 경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희숙, 남춘연, 이호진. 2014.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위기관리논집.

- 10(10): 103-121.
- 박혜원, 안현의. 2006. 초월, 영성 강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영성 및 외상관련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학회. 7(1): 201-214.
- 송승훈. 2007.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K-PTGI)의 신뢰도와 타당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성원. 2007. 警察公務員의 日常的職業的 經驗이 스트레스 水準에 미치는 影響.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안류연, 조용래. 2014. 연평도 포격 피해 주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심각도와 심리사회적 위험요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33(4): 875-890.
- 양귀화. 2014. 외상 후 성장 과정에 대한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현진. 2012. 외상경험과 외상후 성장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국로. 2011. 대학 테니스 선수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안.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현석. 2013. 일반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 표현적 시각의 경찰신뢰도 설명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2(2): 213-236.
- 진보람. 2012. 위협지각, 낙관성 및 삶의 의미가 암 환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주성아. 2009. 직무수행 중 사상사고를 경험한 지하철 승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승미. 2008. 외상후 성장 관련 변인의 탐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승미, 강태영, 우종민. 2006. 스트레스 반응 척도의 수정판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근로자 대상. 신경정신의학회. 45(6): 541-533.
- 최승혜. 2011. 웃음프로그램이 우울 및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보람, 김정규. 2014.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 직무스트레스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33(3): 531-548.
- 홍희정. 2011. 응급의료종사자의 소진 영향요인: 부산, 경남지역 119구급대원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Calhoun, L. G. and R. G. Tedeschi.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 Calhoun, L. G. and R. G. Tedeschi. 2004.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New Considerations. *Psychological Injury*. 15(1): 93-102.

- Frideman, H. S. and S. Booth-Kewley. 1987. Personality, Type A Behavior and Coronary Heart Disease: The Role of Emotional Ex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783-792.
- Lazarus, R. S. and S.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Polatinsky, S. and Y. Esprey. 2000. An Assessment of Gender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Benefit Resulting from the Loss of a Child.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 709-71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83.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3): 279-294.
- Smyth, J. M., J. R. Hockemeyer, and H. Tulloch. 2008. Expressive Writing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Effects on Trauma Symptoms Mood States, and Cortisol Reactivity.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 85-93.

한승우: 경북대학교에서 간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 영향요인, 2014년 12월) 현재 대구광역시 재난심리센터에서 간사로 근무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외상후 성장,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메타 분석, 등이다.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소진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등이 있다 (woowool200@naver.com).

김희숙: 경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논문: MBTI 활용 정신 간호 중재 프로그램이 알코올중독환자의 우울, 대인관계, 및 금주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2004년 2월)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며 구미시 정신보건센터장과 대구재난피해심리지원센터장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재난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인지행동요법을 적용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이 소방공무원의 문제중심대처방식, 직무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또래생명지킴이훈련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실존적 영적안녕감, 친구관계 및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효과 등의 논문과 프로그램 개발 실적이 있다(hskim8878@knu.ac.kr).